

- 주요 뉴스: 미국 '21년 4/4분기 성장률, 6.9%로 예상치 상회. 향후에는 둔화될 가능성
 - 미국 상무장관, 연준의 금리인상 시작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될 전망
 - 슬로바니아 중앙은행 총재,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통과 중
 - 중국 총리, 경제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도입할 방침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긴축기조 강화 전망 및 우크라이나 불안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
주가 하락[-0.5%], 달러화 강세[+0.8%], 금리 하락[-6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통화긴축 경로의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세 지속
유로 Stoxx600지수는 의료 및 은행주 강세 등으로 0.7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3월 금리인상과 양적긴축 가능성 등으로 '20년 7월 이후 최고치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9%, 0.6% 하락
 - 금리: 미국 국채시장은 장단기 금리의 엇갈린 행보로 플레트닝 심화
독일은 연준의 매파적 성향 강화 관측으로 2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04.8원, +1.0원) %0.1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1/27일	1/26일	전일대비			1/27일	1/26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326.5	4,349.9	-0.54%	국채 금리 10y	미국	1.80%	1.86%	-6bp
	유럽	470.33	467.31	0.65%		독일	-0.06%	-0.07%	2bp
	중국	3,394.2	3,455.7	-1.78%	CDS 5y	한국	25bp	24bp	1bp
	일본	26,170	27,011	-3.11%		중국	50bp	47bp	2bp
	한국	2,614.5	2,709.2	-3.50%	위험 지표	EMBI+	-	415	-
환율	달러지수	97.24	96.48	0.79%		VIX	30.49	31.96	-4.60%
	유로화	1.1145	1.1240	-0.85%		WTI유	86.61	87.35	-0.85%
	엔화	115.37	114.64	-0.63%	원자재	구리	441.9	451.5	-2.14%
	위안화	6.3682	6.3209	-0.74%		금	1,797.4	1,819.6	-1.22%
	원화	1,202.8	1,197.7	-0.42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'21년 4/4분기 성장률, 6.9%로 예상치 상회. 향후에는 둔화될 가능성

- 상무부에 따르면, 해당 기간 성장률(전기비연율)은 예상치(5.5%)를 넘어서며 전기비 큰 폭 개선(2.3%→6.9%). 전기비 기준으로는 1.7%를 기록. 연간 기준으로는 5.7%를 나타내며 1984년(7.2%) 이후 최고치
- 이번 결과는 재고투자, 수출, 개인소비지출의 호조 등에 기인. 공급 차질 문제 개선과 늘어난 수요 충족 등을 위해 기업의 재고 수준이 크게 증가. 반면 연방 및 주정부의 지출 등은 이전에 비해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
- Amundi의 Monica Defend는 향후 재고투자 지속을 위해서 결국 양호한 소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분석. 다만 그 동안의 가파른 물가상승과 향후 확실시되는 여러 차례의 금리인상 등을 고려 시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점차 둔화될 소지
- 시장에서는 오미크론 영향에도 금년 성장률이 4%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. Moody's Analytics의 Scott Hoyt는 금년 성장이 둔화되어도 완전고용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지고, 물가상승률도 연말로 가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상무장관, 연준의 금리인상 시작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될 전망

- 레이몬드 장관은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물가하락이 예상되며 이는 소비자들의 행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
■ 미국 '21년 12월 내구재수주, 3개월 만에 전월 대비 감소로 전환

- 상무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내구재수주는 전월 대비 0.9% 줄어, 전월(3.2%) 대비 큰 폭으로 둔화. 다만 자본재 수주는 전월 대비 보합. 시장에서는 이를 기업의 장비 및 설치물 관련 투자가 점차 감소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

■ 미국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전주 대비 감소. 오미크론 영향 완화를 시사

- 노동부에 따르면, 1월 3주차 해당 건수는 26만건 증가하여 전주 대비 3만건 감소. 이는 그 동안 신규고용을 저해했던 오미크론의 여파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. 경제학자들도 노동시장에서 수급이 팽팽한(tight)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

■ 슬로바니아 중앙은행 총재,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통과 중

- 카지미르 총재는 세계적으로 공급 차질 완화 신호가 있으며, 이는 결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. 한편 향후 인플레이션 변동의 핵심 요인은 에너지 가격과 임금상승률 등이 될 것으로 예상

■ 독일 2월 GfK 소비자신뢰, 전월비 소폭 개선. 코로나 사태 개선 기대 등이 영향

- 조사기업 GfK에 따르면, 해당 지수는 -6.7로 전월(-6.9) 대비 오르면서 3개월 만에 상승 전환. 이번 결과는 금년 봄에 코로나 사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 등이 반영. 또한 향후 소비 의향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

■ 중국 총리, 경제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도입할 방침

- 리커창 총리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경기 동향의 영향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언. 또한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첨언

■ 중국 '21년 12월 공업부문 기업이익, 증가세 둔화. 비용증가 등이 원인

- 국가통계국에 따르면, 같은 달 해당 이익은 7342억위안으로 전년동월비 4.2% 증가하여 전월(9%) 대비 둔화. 생산비용 증가 등의 영향이 수익감소로 연결. 다만 '21년 전체로는 전년비 34.3% 증가하여 '1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

■ 러시아 외무부,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화 가능. 미국은 안보 우려 해소에 소극적

- 대통령 대변인 드미트리 펜스코프는 미국과 NATO(북대서양조약기구)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핵심 요구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. 또한 미국이 제시한 합의안 초안 역시 러시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/27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'21년 12월 잠정주택판매(전월비): -3.8% 11월(-2.3%), 예상치(-0.2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/28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'21년 12월 PCE 물가, 개인소비지출, 개인소득
- 유로존 1월 소비자신뢰, 독일 '21년 4/4분기 성장률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연준 의장의 금리인상 계획, 예상보다 적극적인일 가능성 - Financial Times

(‘No more Mr Nice Guy’: Fed chair signals tougher stance on inflation)(NY)

- 시장에서는 1월 FOMC 회의 이후 연준 상황에 따라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금리인상 횟수를 늘리거나 금리인상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. 이에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금리인상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
-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고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는데, 이는 미국이 완전고용에 근접했음을 의미. 아울러 통화정책 방향을 금융시장이 선반영하고 있다면서, 정책은 시장 기대를 반영하여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

■ 미국 연준의 매파적 기조, 신흥국 경제에 긴축압력으로 작용할 소지 - 블룸버그

(Fed's Hawkish Roadmap Sets the Path for Peers in Recovering Asia)

- 최근 연준의 긴축 강화에 아시아 주가는 대부분 큰 폭으로 급락. 이에 아시아 신흥국들은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서두를 필요성 증대. 실제로 인도네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금리인상을 검토
- 하지만 신흥국은 자본유출 방지와 통화가치 보호를 위해서 통화긴축이 필요하나, 이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. 한편 중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고 성장 둔화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통화당국은 완화기조를 유지할 전망

■ 미국 고용, 노동력 수요 증가 등으로 오미크론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 - WSJ

(Job Market Appears Healthy Despite Omicron Headwinds)

■ 미국의 통화긴축, 고용 및 성장 둔화 초래 가능성을 주의할 필요 - Financial Times

(The old inflation playbook no longer applies)

■ 독일 경제, 글로벌 공급병목 및 소비 둔화가 '23년에는 개선될 전망 - Financial Times

(How Germany went from Europe's economic locomotive to its laggard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